

October 2021

10
GUNPO
YOU 군포시

ISSN 2733-5860



GUNPO MONTHLY MAGAZINE
VOL. 405



늘푸른 열린광장

GUNPO Good for you



가을비

도종환

|

어제 우리가 함께 사랑하던 자리에
오늘 가을비가 내립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동안
함께 서서 바라보던 숲에
잎들이 지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사랑하고
오늘 낙엽 지는 자리에 남아 그리워하다
내일 이 자리를 뜨고 나면
바람만이 불겠지요

바람이 부는 동안
또 많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헤어져 그리워하며
한 세상을 살다가 가겠지요

CONTENTS

GUNPO MONTHLY MAGAZINE

October VOL. 405

군포소식

발행 2021년 10월

발행인 군포시장

발행처 군포시청 홍보정보담당관

홈페이지 www.gunpo.go.kr

디자인인쇄 경인M&B

군포시청과 SNS로 친구맺기

 www.facebook.com/gunpocity

 blog.naver.com/o2gunpo

 www.instagram.com/gunpocity

 www.youtube.com/user/gunpocity

 https://pf.kakao.com/_eDSsxb

정기구독 신청(무료)

031-390-0062

kunpo23@korea.kr

※ 구독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군포소식)은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사진, 일러스트, 삽화는 개별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군포多움

이슈 속으로 PART1

독립서점에서 사색(思索)에 잠겨본다는 것

04

이슈 속으로 PART2

나는 매일 군포를 만나러 떠난다
산책하며 만나는 우리 동네 문화유산

08

코로나19, 지금 군포는

코로나19와의 공존
위드 코로나(With Corona)

10



군포情감

꽃보다 사람

방역 최일선에서 희망을 찾다
산본보건지소 산별진료소 선명희 임상병리사

12

온 & 오프

집안에 갇혀만 가는 아이스팩 이렇게 활용하세요

14



군포多락

굿바이 코로나 랜선 나들이

비대면 시대에도 식지 않는 열정
우리는 지금 자기개발 중

16

동네 한 바퀴

도시탐사단과 떠나는
정겨운 외갓집 같은 풍경, 안골길

18

해시태그 G태그

덕후들의 세상이 온다
굿즈 마케팅

20



군포感동

군포아리랑

시민 우선 사람 중심, 군포시청

22

브라보 군포 라이프

채용 트렌드에 대비하는 효과적인 취업전략

24

독자 에세이

26



군포U뉴스

군포U뉴스

28

군포시의회 뉴스

32

독자세상

34

시월에

독립서점에서 사색(思索)에 잠겨본다는 것



시월을 앞두고 가을 색이 한층 완숙미를 더하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서재 여기저기를 기웃거려보지만 마뜩잖기만 하다.
아쉬운 마음을 달래러 스마트폰을 집어 들고 검색해보니, 이내 개성 만점 독립서점 세 곳이 눈에 띈다.
주저 없이 차 키를 집어 들고 서점으로 향하는 내내 자연스레 콧노래가 흥얼거려진다.



책 읽고 싶은 그런 날 있잖아, 그럴 땐 플라테로북스로 가봐

군포시 송부동에 위치한 '플라테로북스'는 순백의 노트처럼 쓰임새가 규정되지 않은 흥미로운 공간이다. 규모는 작지만 여기저기 공간마다 책방지기의 감성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데, 책 외에도 아기자기한 소품까지 준비되어 여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하다.

플라테로북스가 이 자리에 등지를 튼 건 올해 4월로, 번역가로 활동하던 책방지기 강하나 씨가 대표로 있다. 서점의 이름 '플라테로북스'는 강하나 대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책 '당나귀 도서관', 그리고 '플라테로와 나'에서 영감을 얻었는데, 스페인어로 플라테로(platero)가 은화색 털 당나귀를 의미한다고.

평소 강하나 대표는 자신이 사는 마을에 작은 서점이 하나 있었으면 어떨까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내가 직접 서점을 만들어 운영해 볼까?'라는 막연하기만 했던 생각을 구체화했고 현실로 옮겼다. 이런 강하나 대표가 세운 목표는 플라테로북스가 지역의 사랑방으로써 이용되는 것이다. 꼭 책을 구매하지 않아도 언제든지 들러 마을을 이야기하고 살아가는 삶의 풍경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말이다.

한편 강하나 대표는 플라테로북스 내 서가에 진열된 서적을 자신이 직접 모두 읽고 난 뒤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는 책들 위주로 구성한다. 다양한 프로그램도 준비 중이다. 작가와의 만남, 북클럽, 시사산책, 필사 북클럽 등이 그것인데 아쉽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후일에 더 멋진 이벤트로 시민들과 만날 예정이다.



플라테로북스가 추천하는
시월의 추천 도서



시와 산책(Poetry and Walks)

저자: 한정원 | 출판: 시간의 흐름

작가가 쓴 스물일곱 개의 짧은 산문에는 그녀가 거처온 삶의 표정들이, '시'와 '산책'을 통해 느꼈던 생활의 빗금들이 캄캄한 침묵 속에서도 의연히 걸어가는 말줄임표처럼 놓여 있다. 한없이 느리게도 보이고, 더없이 끈질기게도 보이고, 자극히 무연하게도 보이는 문장들로 그녀는 '시'와 '산책'으로 쓸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산문을 완성한다.

플라테로북스

군포시 송부로33번길 3-25 1층, 101호

www.instagram.com/platero.books/



밸류브릿지 터무니 책방이
추천하는 시월의 추천 도서



예술가의 공부

저자: 벤 샐(Ben Shahn) | 출판: 유유출판사

1956년 하버드대학에서는 미국 화가 벤 샐을 강연에 초청한다. 벤 샐은 사회적 정치적 메시지를 담은 작품으로 고유의 스타일을 확립한 예술가로, 그의 작품과 철학은 다양한 사회운동과 결부된 작업을 하는 여러 예술가에게 영향을 미쳤다. 그런 그가 찰스 엘리엇 노튼 강연에서 여섯 번에 걸쳐 예술과 대학의 관계, 자신의 작업 과정과 예술관, 예술에서 형식과 내용의 관계, 예술/예술가의 비순응성, 현대 예술의 가치를 평가하는 일, 예술가가 되기 위해 필요한 공부에 관하여 명쾌한 어조로 친절하게 이야기한다.

밸류브릿지 터무니 책방

군포시 금산로 84, 4층
www.value-bridge.com/
 031-396-1693

독자가 작가로 작가가 독자로, 밸류브릿지 터무니 책방

문화공간 '공터'에서 출발한 '밸류브릿지 터무니 책방(이하 터무니 책방)'은 금정역 6번 출구에서 10여 분 내에 도착할 수 있는 상가건물 4층에 위치해 있다. 군포시에 독립서점을 찾아볼 수 없던 시절 책방지기이자 작가이며 문화기획자인 엄선 대표가 함께하는 창작자들과 의기투합해 만든 공간이다. 운영 주체는 군포시와 로컬무대를 중심으로 문화기획 및 크리에이티브 커뮤니티를 실천하고 있는 '밸류브릿지'로 대안공간이자 카페, 갤러리,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은 시민과 책을 위한 '책 공간'이다.

터무니책방의 특징은 각 공간마다 이름이 있다는 것으로 서가는 '작은사막', 갤러리는 '달의 위성', 카페는 '오하이시스', 세미나실은 '4004호' 등으로 불린다. 책방에는 엄선 대표를 비롯해 2명의 책방지기가 함께 하며, 이들은 문화와 환경에 관심을 같이하고 있다. 독립서점의 장점이자 단점을 꼽는다면 흔히 말하는 베스트셀러의 비중이 크지 않거나 배제된다. 어쩌면 지극히 인디문화와 닮아 있다.

이는 터무니 책방도 마찬가지로 엄선 대표와 책방지기들의 감성이 고스란히 묻어난 책들이 주로 전시된다. 하지만 어느 서점들과 달리 오히려 흥미로운 책들을 발견하는 재미가 있어 이 가을에 추천하고 싶다. 필요하다면 책방지기들에게 큐레이션을 부탁해도 좋고, 각 책들마다 큐레이션 메모지 적혀있어 낯설지만 나에게 맞는 책을 쉽게 고를 수도 있다. 터무니 책방은 그 이름처럼 규정된 규칙 없이 우연에서 발현되는 긍정에너지를 원한다. 그 예가 독자가 작가가 되고 작가가 독자가 되는 우연의 경험이다. 때로는 독자와 작가의 즉석 미팅이 이뤄지기도 한다. 이에 엄선 대표는 독자들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프로젝트를 계속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책방 연두가 추천하는 시월의 추천 도서

트러블과 함께하기

저자, 도나 해러웨이(DONNA J. HARAWAY)

최유미 옮김 | 출판, 마농지

우리 시대 가장 독창적인 사상가의 한 사람인 도나 해러웨이의 최신작 세계적인 페미니즘 이론가이자 생물학자, 과학학자, 문화비평가인 해러웨이는 남성/여성, 인간/동물, 유기체/기계 같은 이분법적 질서를 해체하고, 학문의 장벽을 뛰어넘는 다학제 연구와 종의 경계를 허무는 전복적 시각으로 사유의 지평을 넓혀왔다.



책방 연두

군포시 오금로134번 안길 5 102호

www.instagram.com/chaegilneunbang/

031-396-1693

가을날 즐기는 인문학 이야기, 책방 연두

군포시 금정동에 위치한 '책방 연두'의 가장 큰 특징은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으로, 책 읽는 모임에서 함께 활동하던 친구와 의기투합해 시작했다. 하지만 현재는 바쁜 회사생활로 친구가 떠나고 강신영 대표가 홀로 운영 중이다. 책방 연두의 공식 명칭은 '책 읽는 방 연두이야기'다. 여기서 '연두'는 강신영 대표가 평소 흠모하던 싱어송라이터 '루시드폴'의 곡 '연두'에서 영향을 받았다. 이런 연두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인문학 서점'이라는 것으로, 평소 인문학에 관심이 많았던 강신영 대표의 소신이 그대로 담겨 있다. 그래서인지 작은 공간 안에는 인문학 관련 서적들로 빼곡하다.

아담하지만 있을 건 다 있는 책방 연두는 마을 학부모들의 사랑방이자 토론의 장이 되기도 한다. 무인으로 운영되는 특성상 예약은 필수로, 삼삼오오 방문해 책도 읽고 토론도 이뤄진다. 책방 한편에는 셀프로 운영되는 작은 카페도 운영 중이다. 강신영 대표가 처음 문을 열었을 때 꿈꿨던 책방의 모습은 왠지자질 모임이 이뤄지고 책 읽기 좋은 장소가 되길 희망했고, 이 같은 희망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현재 책방 연두가 위치한 자리엔 초등학교와 중학교 등이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인지 부모님 손을 잡고 방문하는 꼬마 손님들이 많다. 이에 강신영 대표는 아이들에게 그림책을 읽어주고 독후감을 써 부모님 앞에서 발표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책방 연두에서 책을 읽기 원하는 시민은 책방 클럽 회원에 가입 후 누구나 방문해 책을 읽다 갈 수 있으며, 평소에는 문이 잠겨 있어 강신영 대표에게 연락 후 방문이 가능하다.



Tip. 군포시, '동네서점 바로대출 서비스' 이용해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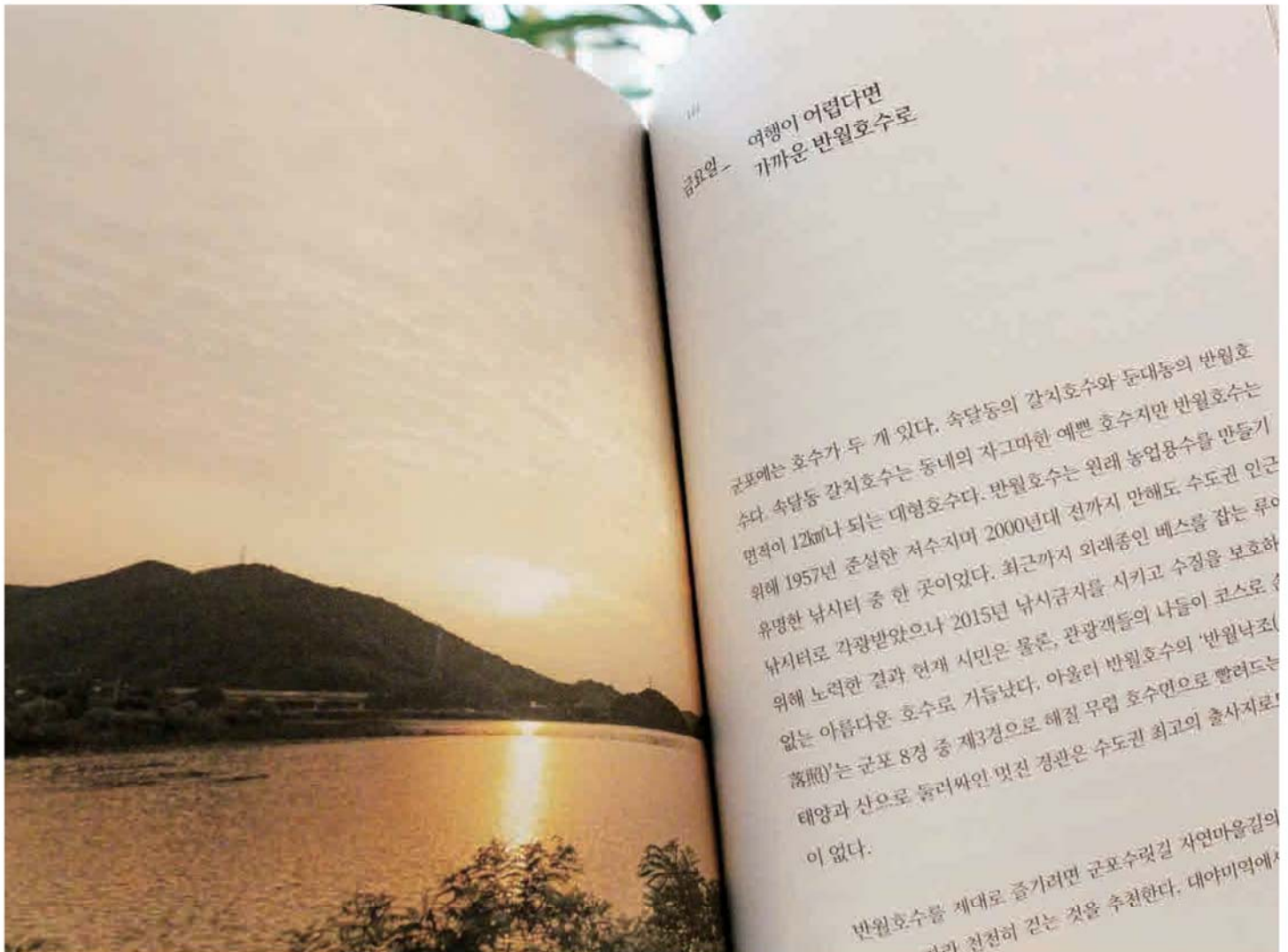
지난해 지역서점들과 체결한 협약에 따라 '동네서점 바로대출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8월 24일부터 군포시도서관 도서대출회원은 원하는 책을 가까운 서점에서 대출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군포시도서관 대출회원 1인당 월 2권까지 가능) '동네서점 바로대출 서비스'는 중앙도서관과 어린이도서관에 소장하지 않은 도서를 가까운 서점에서 대출받고 반납할 수 있는 서비스로, 10일 이상 소요되던 신간도서 정리가 시간이 단축돼 보다 빠르게 신간도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군포시도서관 홈페이지(www.gunpolib.go.kr)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서비스를 신청한 이용자는 수령 안내 문자를 받은 후 지정된 서점을 방문해 신청 도서를 받을 수 있으며, 반납할 때도 수령했던 서점을 찾아 반납하면 됩니다. '동네서점 바로대출 서비스' 참여 서점은 명문서점(신분천로 193), 신분문고(광정로 70), 열린문고(군포로 464번길 2), 자유문고(신분천로 62) 등 4곳이며, 군포시도서관 대출회원은 방문하기 쉬운 서점을 지정해 서비스를 신청하면 됩니다. 문의 : 군포시 도서관정책과(031-390-8875)

나는 매일 군포를 만나러 떠난다

산책하며 만나는 우리 동네 문화유산

군포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는 정작 군포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이 같은 자문(自問)을 말끔히 해소할 수 있는 책 두 권이 발간됐다.

군포의 어제와 오늘을 매일 책으로 만날 수 있는 '산책하며 만나는 우리 동네 문화유산'이 그것이다.





책 한 권으로 산책하듯 매일 만나는 군포

군포시 관내에 점점이 흩어져 있는 문화유산을 보다 알기 쉽고 흥미롭게 소개한 '산책하며 만나는 우리 동네 문화유산'은,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문화유산을 안내하고 재해석한 책이다. 이 책은 여행기 형식으로 기술해 독자들의 흥미를 유도하면서도 가독성이 높아 청소년들의 문화유산 교재로도 손색이 없다.

책의 구성은 '이른 퇴근 후 가고 싶은 곳', '무작정 걷고 싶을 때 가고 싶은 곳', '아이디어가 필요할 때 가고 싶은 곳' 등을 요일별 테마 형식으로 실어 흥미를 유도하고 있다. 따라서 한 주 내내 친근하게 군포의 문화를 접할 수 있다.

일요일_ 내일을 위한 에너지 충전

“수리산으로 통하는 모든 길은 이제 어린아이에서 어른신까지
누구나 쉽게 자연을 즐길 수 있는 느림보 길이 됐다.”

시민의 산으로 거듭난 군포의 진산 수리산
1,500년 세월 품은 산밋의 전설 수리사

— 산책하며 만나는 우리 동네 문화유산 中 —

이와 함께 가이드북 형태의 포켓용 문화유산 책도 함께 펴냈는데,
이 소책자는 휴대가 용이해 작은 가방에 넣어 다니다 언제 어디서든 꺼내 읽을 수 있다.
내용 또한 어렵지 않아 어린이들의 교육자료로도 활용 가치가 높다.
특히 생생한 화보가 함께 곁들여져 책을 읽어가느 내내 익숙한 풍경에 친근함마저 든다.

코로나19와의 공존

위드 코로나(With Corona)

세계는 지금 ‘위드 코로나(With Corona)’를 염두에 두고 있다. 여기서 위드 코로나란 코로나 19가 강력한 변이와 돌파감염 등으로 팬데믹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대두되고 있는 개념으로,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을 기대하는 것보다 치명률을 낮추는 새로운 방역체계 등을 도입해 코로나19와의 공존을 준비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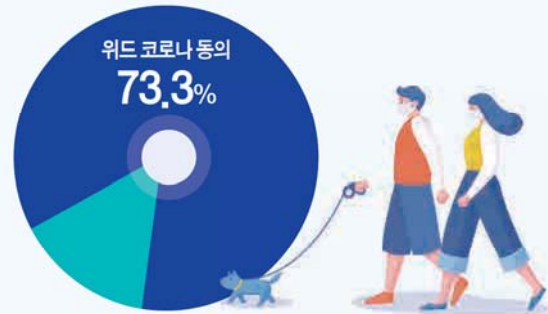
새로운 방역체계로의 전환

위드 코로나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대두되고 있는 개념으로, 코로나19의 완전 종식을 기대하던 것과 달리 인식과 방역체계를 바꾸어 코로나19와의 공존을 준비해야 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풀어 말하면 코로나19의 완전 퇴치가 당장 힘들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지친 국민들의 일상과 경제회복,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발생하는 막대한 비용을 보다 효과적으로 줄이고 치명률을 낮추는 새로운 방역체계로 전환하자는 얘기다.

물론 코로나19 백신이 속속 개발되면서 세계는 접종을 시작했고 종식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진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변이 바이러스의 출몰로 돌파감염 사례가 이어지면서 위드 코로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실제로 영국·이스라엘 등 높은 백신접종률을 기록한 국가들에서는 기존의 방역 조치가 더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된 방역지침을 완화하고 있다. 특히 영국의 경우 2021년 7월 19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모임 제한 등의 방역규칙을 전면 완화해 '위드 코로나' 실험에 들어갔다.

우리 정부도 고령층 90% 이상, 성인 80% 이상이 백신접종을 완료하면 방역 전략을 전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으며,



인구의 70%가 접종이 완료되는 시점인 10월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접종이 순조롭게 이어진다는 가정하에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와 관련한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 결과 위드 코로나 전환에 동의하는 국민이 73.3%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어 분명히 갈리는 분위기다. 이에 우리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의 현 규제를 일시 철폐하기보다는 단계적으로 일상을 회복한다는 의미의 '단계적 일상 회복'이라는 단어 사용을 권고했다. 예방 접종률이 높은 나라들도 여전히 마스크 착용을 유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했을 때 당연한 조치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위드 코로나는 필연적으로 시민들의 방역적 긴장감을 완화할 수 있으며, 단계적 일상 회복은 위드 코로나로의 접근 방법을 구체화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위드 코로나 왜 부각되나

델타 등 강력한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2020년 10월 인도에서 처음 발견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로 알파(α , 영국), 베타(β , 남아프리카공화국), 감마(γ , 브라질)와 함께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우려 변이(Variant of Concern)' 중 하나이다. 특히 백신 효과를 무력화하는 것으로 알려진 페루발 '람다 변이' 등 잇따른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은 코로나19 종식보다는 공존이 대두되는 하나의 배경이 되었다.

돌파감염 추정 사례 증가

돌파감염은 정해진 백신 접종 횟수를 마치고 2주간의 항체 생성 기간이 지난 후에도 다시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경우로, 이는 기존 백신을 우회하는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백신 최종 접종자가 새로운 감염에 노출됐을 때 발생한다. 실제로 돌파감염 사례가 증가하면서 미국에서는 '부스터샷'이 꾸준히 주장되고 있는 현실이다. 부스터샷은 백신의 면역 효과를 강화하거나 효력을 연장하기 위해 일정 시간이 지난 뒤 추가 접종을 하는 것을 말한다.



방역 최일선에서 희망을 찾다

산본보건지소 선별진료소 선명희 임상병리사

추석을 며칠 앞두고 군포시 산본보건지소 옆에 마련된 선별진료소를 찾았다. 평일 낮임에도 선별진료소는 검사를 위해 찾은 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어, 코로나19의 위용이 얼마나 대단한지 실감할 수 있는 현장이었다. 그리고 그 현장에는 작은 체구로 구슬땀을 흘리며 시민 한 명 한 명을 살뜰히 챙기고 있는 선명희 임상병리사가 있었다.

날마다 치열하지만,

밝은 미소로 마주할 내일을 위해

화창하다 못해 투명하기까지 했던 지난 9월의 어느 날, 방역 최일선에서 시민들과 함께 코로나19의 종식을 기원하며,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선명희 임상병리사(32)를 만났다. 그가 근무 중인 곳은 군포시 산본보건지소 옆 주차장에 마련된 선별진료소로, 수많은 시민이 초조한 듯 긴 대기줄을 이루고 있었다.

선명희 씨는 본 현장에서 검체채취를 주로 담당하고 있다. 작은 체구로 시민 한 명 한 명을 살뜰히 챙기고 돌아서는 길까지 안전하게 안내하는 모습이 당차기까지 하다. 그가 산본보건지소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한 기간은 약 2개월 차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파견직으로 나와 있다.

현재 산본보건지소 선별진료소에는 의료인들 외에 군인력도 검체채취 간접 지원의 일환으로 이용객 접

66

선명희 씨는 현장에서 검체채취를 주로 담당하고 있다. 작은 채구로 시민 한 명 한 명을 살뜰히 챙기고 돌아서는 길까지 안전하게 안내하는 모습이 당차기까지 하다.

99



수, 문진표 수령, 시료병 불출, 대기 인원 안내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이에 선명희 씨는 “함께 고생해주고 있는 많은 동료들이 건강 잘 챙길 수 있길 바라며,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같이 묵묵히 자신의 소임을 다해주고 있어 감사하고 고맙다.”며 당부와 감사의 메시지를 전했다. 현장에서의 매일이 얼마나 치열한지를 방증하는 대목이다.

함께 할 때 보다 큰 결실 만들 수 있어

“우리가 함께할 때 더 큰 결실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강조하는 선명희 씨는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늘 모범적인 모습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이러한 그를 가장 걱정하는 건 가족들과 사회복지사인 남편이다. 이에 그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남편에게 늘 고맙고 감사하다.”면서 “끝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응원해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처럼 선명희 씨는 늘 열정적인 모습이다. 이에 우리는 그를 응원하며 10년간 임상병리사로 활동하며 경험하고 쌓아온 노하우가 우리 시민들에게 큰 힘이 되길 바란다. 한편 선명희 씨는 코로나19 방역 최일선에서 애쓰



는 동료들과 의료진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에 귀 기울여 달라는 바람을 전하기 했다. 그 첫 번째는 보다 원활한 업무를 위해 보다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지난 여름 내내 경험했던 무더위와의 싸움은 동료들 모두가 입 모아 말하는 잇기 힘들 만큼의 고통이었다고. 다음 두 번째는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금의 위기를 잘 모면하기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부탁했는데, 간혹 때를 쓰거나 과도한 요구를 하는 일부 시민들로 인해 다른 시민들에게 피해가 이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 선명희 씨는 작은 소망이 있다. 바로 2세를 가지는 것인데, 군포에서의 임무를 마치고 돌아가면 엄마가 될 준비를 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시민들에게는 빠짐없이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올바른 거리두기를 실천해 오늘의 힘겨운 위기를 같이, 그리고 슬기롭게 헤쳐나가자는 당부를 잊지 않고 남겼다.

집안에 쌓여만 가는

아이스팩 이렇게 활용하세요

외부에서 장을 보는 경우보다 온라인 쇼핑물을 이용해 장을 보는 게 더 자연스러운 요즘이다.

이로 인해 각 가정에 택배상자와 함께 쌓여만 가는 물건이 있다. 바로 아이스팩이다.

그냥 버리자니 환경오염이 걱정이고, 분리배출을 하자니 방법이 애매하다.

따라서 처치 곤란한 아이스팩을 슬기롭게 재활용하는 법과 제대로 배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다.

아이스팩으로 재활용 방향제 만들어봐요

무심히 쓰레기통에 버려지거나 재활용되던 아이스팩을 방향제로 재활용해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준비물은 아이스팩 안의 내용물과 천연오일 또는 잘 사용하지 않지만 내가 좋아하는 향수와 유리병 등만 있으면 된다. 만드는 방법도 간단하다. 우선 빈 유리병 또는 페트병을 잘 씻은 뒤 말려 준비하고, 아이스팩 안에 들어 있던 내용물은 넣은 뒤 식용색소를 적당량 넣어 골고루 섞어 준다.

여기까지 성공했다면 평소 좋아하던 향수나 천연오일을 10방울 정도 넣어준 뒤 그 위에 아이스팩 내용물을 다시 채워 적당한 향이 날 수 있도록 해준다. 조금 더 예쁘게 꾸미고 싶을 때는 병 외부를 노끈으로 감아 분위기를 더해주거나 드라이플라워로 장식하면 좋다.

시간이 지나면 향의 지속성이 떨어지니 취향에 맞게 향을 추가해 사용하면 된다.





화분을 키운다면 물탱크로 사용해보세요

화분을 키운다면 아이스팩 내용물을 물탱크로 활용할 수 있다. 텃밭에서 농사를 짓거나 화분에서 화초를 기를 때 아이스팩 내용물을 몇 손가락씩 떠 넣어주면 물이 마르지 않아 작물이 잘 자란다.

아이스팩 내용물인 고흡수성수지(SAP)가 발이나 화분에 물을 댄 수천배의 수분을 흡수하고, 건조할 때는 뿌리에 수분 공급을 하는 물탱크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SAP는 아크릴산과 가성소다를 중합해 만든 흰색 분말 형태의 합성수지 제품으로, 주로 유아성인용 기저귀, 여성용품, 전선 방수제 등의 원료로 사용된다. 농업분야에선 토양개량제, 수분 보존제로 쓰이고 있다.

군포시 각 행정복지센터 수거함도 이용해보세요

군포시는 관내 행정복지센터에 수거함을 설치하고, 수거된 아이스팩을 세척, 소독, 건조 과정을 거쳐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식육 포장처리업체 등 필요한 수요처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신선식품 등의 배달이 증가하면서 한 번만 사용하고 버려지는 아이스팩이 늘어나는 등, 환경오염이 우려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참여 방법은 깨끗한 젤 타입의 실온상태 아이스팩을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아이스팩 수거함에 배출하면 된다. 단, 비닐로 포장된 깨끗한 젤 타입 아이스팩만 수거함에 넣어야 한다.

파손되거나 오염된 아이스팩은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하며, 물 타입의 아이스팩은 개봉 후 물은 하수구에 버리고 겉 포장재는 재질(종이, 비닐)에 따라 분리배출해야 한다.

비대면 시대에도 식지 않는 열정 | 우리는 지금 자기개발 중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고용불안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따른 업무역량 강화 및 제2의 직업을 위한 자기개발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직장에서 안정적으로 경험을 쌓거나 더 나은 직업을 찾기 위해
퇴근 후 자기개발에 열중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직장인 65%가 재직 중 자기개발에 나서

구인구직 플랫폼 기업에서 지난 5월 직장인 1,26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직장인 65%가 재직 중에 자기개발에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를 살펴보면 고용불안에 대한 불안함으로 자기개발 필요가 늘어났다는 응답이 56%, 퇴직 이후 및 N잡을 준비하기 위함인 30.2%로 나타났다. 또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자기개발에 투자할 시간이 많아졌다는 응답이 33%, 모임 등이 축소되면서 자기개발에 투자할 비용이 생겼다는 응답이 17.7%로 흥미로운 결과들이 이어졌다.

이처럼 직장인들은 변화된 고용환경으로 스스로가 직무능력 향상과 미래 대비를 위한 준비로 열심이며, 이에 따른 직무능력 향상과 커리어 개발에 도움이 되는 성인 교육 콘텐츠들도 성황 중에 있다. 이들은 모바일과 온라인을 통해 교육수업이 진행됨으로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으며, 최근에는 전문성을 강화한 다양한 교육 플랫폼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커리어 개발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직장에서 안정적으로 커리어를 쌓거나 더 나은 제2의 직업을 찾기 위해 퇴근 후에도 자기개발에 매진하는 직장인들도 늘어나고 있다. 교육부가 올해 초 발표한 '2020 국가평생교육통계' 자료에 따르면 성인 10명 중 4명이 평생학습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평생교육 정책 수립·연구에 활용하기 위해 전국 성인 9,776명과 평생교육기관 4,541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다.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도 눈여겨볼 만해



자기개발을 희망하는 경기도민이라면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에 관심을 가져보길 바란다. 지식(gseek.kr)은 외국어·IT·자기개발·생활취미·인문소양 등 8개 분야 1,500여 개의 온라인교육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올해 1~8월 교육수강 115만 6,000여 건의 약 40%인 45만 6,000건이 50대 이상일 정도로 중년층과 고령층의 인기를 끌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평생학습포털 활용 폭을 넓히고 있다. 지난 6월에는 화상회의 플랫폼인 '줌(Zoom)'에 도가 자체 개발한 학사관리 시스템을 결합한 '화상 학습 서비스'를 개시했다. 이를 통해 교육과정의 시간적·공간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한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도와 시·군의 온라인 교육과 실시간 평생교육 서비스도 통합 운영 중이다. 또 연말까지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와 협동조합 직무교육, 하도급법의 이해, 풀뿌리 활동가 교육 등 도와 시·군의 80여 개 화상학습 콘텐츠를 개설·지원할 계획이다.

업무역량 강화 위한 교육 콘텐츠들

최근 업무역량 강화에 필요한 다양한 콘텐츠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중 '클래스101 커리어'는 디자인은 물론 외국어 번역까지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은 취미, 재테크, 키즈 클래스 등 다양한 분야의 온라인 클래스와 직장인과 취준생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한다.

또 다른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코드스테이츠'는 직무능력 향상을 넘어 체계적인 학습과정을 통해 단기간 내에 실무 역량 향상을 지원하는 부트캠프 프로그램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이들은 IT 교육의 제공은 물론, 230여 개에 달하는 유수의 기업에 채용까지 연계하고 있다. 또한 일정 연봉 이상으로 취업에 성공할 경우 소득의 일부를 교육비로 후지불하는 '소득공유(ISA, Income Share Agreement)' 모델을 커리큘럼에 적용해 눈길을 끌고 있는데, 커리어 전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초기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든 '위·윈(We-Win)' 프로그램을 국내 최초로 선보여 주목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콘텐츠는 '휴넷'으로 이들은 직업훈련부터 직장인을 위한 승진 교육, 은퇴 시니어의 고용 창출까지 성인을 위한 실용적인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외국어, 자격증뿐만 아니라 직장인을 위한 승진교육, 팀장 리더십 스쿨, 과장역량 빌드업스쿨 등 다양한 직원교육 커리큘럼을 제공해 직장인 업무역량 강화를 돕고 있다.

도시탐사단과 떠나는 정겨운 외갓집 같은 풍경, 안골길



안골 마을길



안골의 한 농가

안녕, 대야미

오늘의 탐사코스는 대야미 안골마을. 대야미역에서 반월호수로 가는 도로 중간쯤 자리한 안골은 수리산에서 흘러내린 낮은 산자락에 폭 감싸인 마을로 도로변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햇볕이 제법 따갑지만 '대야미에서는 걷는 것이 예의'라며 우리는 조로롱 줄을 지어 좁은 인도를 걷기 시작했다. 신발주머니를 흔들며 신나게 학교로 가는 아이들. 코로나 상황으로 오랜만에 보는 등굣길 풍경이 새삼 반갑고 몽클하다.

죽암마을 삼거리를 지나 길가에 마을의 역사를 담고 있는 듯 해묵은 둔대리 새마을회관이 보인다. 도로변 인도의 심심한 풍경을 버리고 건물 뒤 샅길로 들어섰다. 큰길과 나란히 이어지는 길을 따라가면 복개마을 정류장이 나온다. 안골마을로 들어가는 길 입구, 커다란 교통반사경의 볼록거울에 인사를 건네 본다.

안녕? 우리가 왔어요! 개발을 앞두고 거의 비워진 마을 어귀로 들어서니 어딘가 쓸쓸한 분위기가 감돈다. 오른쪽 산길을 따라 작은 물길이 졸졸 흐르고 있는 안골은 참 조그만 마을이다. 10년 전 처음 이곳에 왔을 때 갓 모내기를 끝낸 논이 물속에서 하늘거리는 어린 벼

포기가 참 예뻐던 기억이다. 특별한 것은 없지만 웬지 어릴 때 가 본 외갓집처럼 포근하게 마음에 들어오는 마을의 풍경이 참 좋았다.

한 품에 안을 수 있을 듯한 자그마한 마을 풍경

낮게 구름을 이룬 논밭들 사이로 제 맘대로 구부러져 있는 길을 따라 걷다 보면 갈림길이 나온다. 왼쪽 길로 계속 가면 산길을 통해 갈치호수나 덕고개 쪽으로 가는 길이 있다고 하는데, 다음을 기억하고 오늘은 오른쪽으로 발길을 돌린다. 좁은 골목 양쪽으로 여러 호의 집들이 모여 있고 그 골목을 잠깐 돌아보면 마을의 끝자락이다. 오던 길을 뒤 돌아보니 저 멀리 영동고속도로 교각 위로 분주하게 달리는 차량들과 평화로운 안골마을의 정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팔을 벌리면 한 품에 안을 수 있을 듯 자그마한 마을이 참 아늑하다.

마을의 집들은 대부분 시멘트 담장과 슬레이트 지붕을 이고 있는 오래된 시골집이지만, 그 사이로 간간이 멋스러운 목조주택과 벽돌담을 두른 예쁜 현대식 주택도 눈에 띈다. 별장처럼 한적하게 살기에 좋은 터전이었을 게다. 인적 없는 고즈넉한 골목에 색색으로 피어난 꽃들이 화사하다. 마지막 집을 돌아가니 길은 산을 끼고 계속 이어

진다. 문득 마주친 공터에 새하얀 망초꽃이 가득 피어있다. 흔히 보는 풀이지만 무리지어 피어있으니 그렇게 고울 수가 없다. 바로 옆 길가 빈집 담장에 앵두나무가 구슬처럼 빨간 열매를 주렁주렁 달고 있다. 이 나무를 심고 가꾸었을 주인장에게 마음으로 인사를 건네며 몇 알 입에 넣어 본다.

유연한 곡선을 그리며 이어지는 길이 참 아름답다. 커튼처럼 처렁처럼 늘어진 철쭉꽃과 양쪽으로 무성한 나무가 터널을 이루고 있어 마치 깊은 산속을 걷는 느낌이다. 도심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이렇듯 마법 같은 공간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숲길이 끝나면서 군데군데 오래된 농가가 보인다. 잘 익은 황금빛 이삭이 바람에 흔들리는 보리밭 위쪽 언덕에 큰 형님처럼 서 있는 기와집 마당으로 들어섰다. 세월에 부서져 내린 황토벽과 서까래 위로 기와지붕을 얹은 집의 모양새가 사극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다. 시간을 거슬러 오랜 세월을 건너온 묘한 분위기이다. 널어놓은 곡식이 햇볕에 잘 마르고 있는 마당 한 귀퉁이에서 붉은 주머니가 달린 복조리를 발견했다. 한때는 대문에 매달려 이 집의 복을 지켰겠지. 눈감고 가만 귀를 기울이니 이 집 사람들의 살아온 이야기가 들리는 듯하다.



보리밭과 심씨댁



기억의 자취

안골의 풍경을 기억하다



며칠 전 온 비 때문인지 길가 좁은 수로를 흐르는 물살이 제법 세다. 안골 입구에서 본 물길로 이어져 죽암천으로 연결되는 게 아닐까 싶다. 마지막 길가 집의 대문 위에서 범상치 않은 무언가가 눈길을 끌었다. 한문 글씨가 새겨진 낡은 목판과 태극무늬가 그려진 창살이다. 오랜 세월이 글씨가 흐릿해져 읽기가 쉽지 않다.

‘孝子學生沈文舟之門(효자학생심문주지문)’

‘上之即 祥二十年壬午四月 日 命旌闕(상지즉 조이십년 임오사월 일명정려)’

자료를 찾아보니 아마도 충신, 효자, 효부, 열녀 등을 기리기 위해 나라에서 내리는 정려문(효자문)인 것으로 보인다. 상지 20년, 임오년이란 글자로 보건대, 1863년에 즉위한 고종의 치세 20년 되는 해가 바로 임오년이니 1882년을 말하는 것이라고 추측된다. 아마도 이 댁에 살던 심씨가 어떤 분에게 내려진 것이 아닐까 싶다. 정확한 역사적 사실관계는 알지 못하나, 의미 있는 향토 자료로 보존될 만하지 않을까? 이대로 파묻혀 사라지는 것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며 대야미역을 향해 발길을 돌렸다.

1조 대원들과 함께 안골 탐사를 다녀온 건 지난 6월 중순 무렵이다. 그 후 이 일대 개발구역의 경계선마다 펜스가 설치되었다. 이래저래 미뤄지던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가 보다. 유난히 정겨웠던 안골의 풍경을 기억하며, 가능하다면 한 번 더 이곳을 찾아 지난번 미뤄 둔 왼쪽 갈림길을 마저 걸어보고 싶다.

- 2021년 6월 14일 도시탐사단 1조



도시탐사단은 ‘문화도시 군포’ 만들기 일환으로 시민이 직접 탐사코스를 제안하며, 가장 군포다운 장소를 함께 찾고 소개합니다. 현재 총 40명이 활동 중이며 활동 내용을 연재하고자 합니다.



덕후들의 세상이 온다

굿즈 마케팅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단어 중 ‘덕후’라는 말이 있다. 덕후는 일본어 오타쿠(御宅)를 한국식으로 발음한 ‘오덕후’의 줄임말로, 현재는 어떤 분야에 몰두해 전문가 이상의 열정과 흥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된다. 또 다른 말로는 마니아(mania)라고도 하는데, 최근 이러한 마니아층을 겨냥한 굿즈 마케팅이 인기다.

굿즈 마케팅을 아시나요?

브랜드가 지니고 있는 개성이나 특징을 잘 살려서 만든 상품으로 소비자의 구매욕을 자극하는 마케팅 기법을 ‘굿즈 마케팅(Goods Marketing)’이라고 칭한다. 따라서 기업들은 자신들이 내세운 브랜드의 이미지를 각인시키기 위해 브랜드 고유의 특성을 살린 상품을 제작·출시하여, 소비자의 구매욕을 자극하고 브랜드 충성도를 확보하기 위한 마케팅 기법으로 활용하고 있다. 여기서 굿즈(goods)는 본래 상품·제품이라는 뜻이지만, 현재는 그 브랜드만의 특징을 살린 파생상품이라는 의미로 확대돼 사용되고 있다.

한편 굿즈는 판매율을 높이기 위한 일시적인 이벤트성으로 기획된 것이기 때문에 특히 편슈머 기질이 강한 MZ세대들에게 효과적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이색적이고 희소성을 지닌 상품은 MZ세대의 구매욕을 자극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굿즈 마케팅을 통해 매출 및 브랜드 호감도 상승을 기대할 수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굿즈 구매를 통해서 소비욕구 충족은 물론 색다른 재미까지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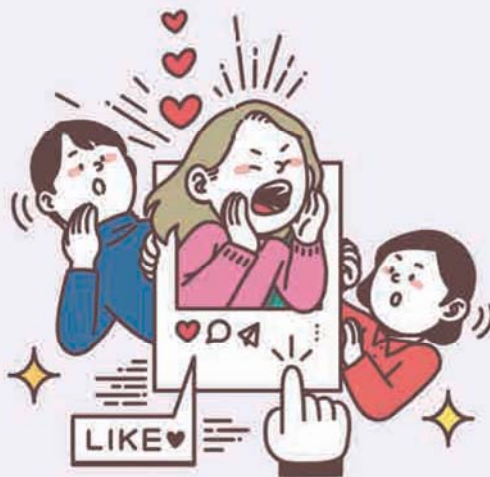
여기서 기업들이 주의할 점은 굿즈 마케팅이 굿즈만 구매하고 이탈하는 고객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한계에 직면하기도 한다는 것인데, 다시 말해 브랜드에 대해서는 제대로 인지하지 않고 굿즈만 유행하는 것에서 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굿즈 생산 등으로 그 마케팅 비용이 높다는 부담도 존재한다.

굿즈를 리드하는 MZ세대

굿즈에 대한 관심이 가장 많은 층은 앞서 밝힌 것과 같이 'MZ세대'다. MZ세대란 198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와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 출생한 'Z세대'를 합쳐서 부르는 말로써, 이들은 디지털에 익숙하고 트렌드에 민감한 특징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MZ세대에게 굿즈가 사랑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전문가들은 'SNS'로 구매 제품을 공유하는 성향이 강하고, 개성과 희소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으로 이들에게 굿즈가 핫한 아이템으로 떠오르기에 충분하기 때문으로 분석한다. 이러한 MZ세대들의 성향을 잘 알고 있는 기업들은 그들을 겨냥한 굿즈 마케팅을 활발하게 활용 중이다.

하지만 굿즈 마케팅은 양날의 칼과 같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다시 말해 장점과 단점이 공존한다는 것인데, 기업에게 있어 굿즈 마케팅은 매출을 상승시키는 주요 요소 중 하나로 브랜드 인지도까지 높일 수 있는 수단이 된다. 또 소비자들에게는 즐거움과 만족감을 선사해 브랜드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마케팅 기법이다. 반면 단점도 존재한다. 최근 드러나고 있는 부정적 측면을 살펴보면, 브랜드에 대한 인식의 깊이가 알을 수 있고 순간적인 유행에 그쳐 마케팅 비용이 높아진다는 단점이 있다. 이와 함께 최근에는 안전성에 대한 문제도 대두되고 있는데, 생활제품 기업이 우유 전문기업의 브랜드를 이용해 세제를 만들어 판매하면서 실제 우유로 착각한 소비자가 세제를 마실 수 있다는 위험성이 제기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현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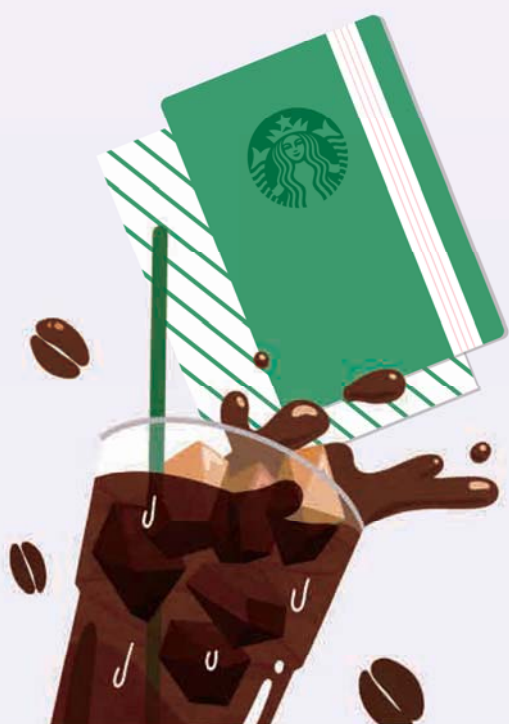


굿즈로 기업의 가치를 높여온 스타벅스

수많은 굿즈 중 오래전부터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아오고 있는 기업이 있다. 커피 브랜드를 대표하는 스타벅스가 그 주인공이다. 요즘은 일상의 한 부분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 테이크아웃 문화와 카페가 단순 음료 판매기능을 넘어 공부와 업무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 것도 스타벅스다. 이러한 이들에게도 굿즈는 중요한 마케팅 수단이다.

스타벅스만의 굿즈 마케팅이 시작된 시점은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크리스마스 시즌에 맞춰 다이어리 프로모션을 시작했고, 단골의 방문 횟수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충성 고객층을 형성해 나갔다.

이 같은 그들의 전략은 고객들에게 통했고, 스타벅스는 겨울행사를 여름으로까지 확대했다. 굿즈 마케팅에 활용된 제품들도 소풍용 돛자리부터 캠핑용품 등으로 다양화 했다. 여기에 유명 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해 사은품의 질을 높여, 그들의 로고 '사이렌'을 갖고 싶은 브랜드와 제품으로 승화시키며 굿즈 마케팅의 선두주자이자 모범사례로 만들어냈다.



시민 우선 사람 중심

군포시청

Gunpo City Hall, 軍浦市廳



군포시청 옛 전경

※ 군포 아리랑은 군포의 옛 모습과 현재의 모습을 비교해봄으로써 군포의 내일과 비전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코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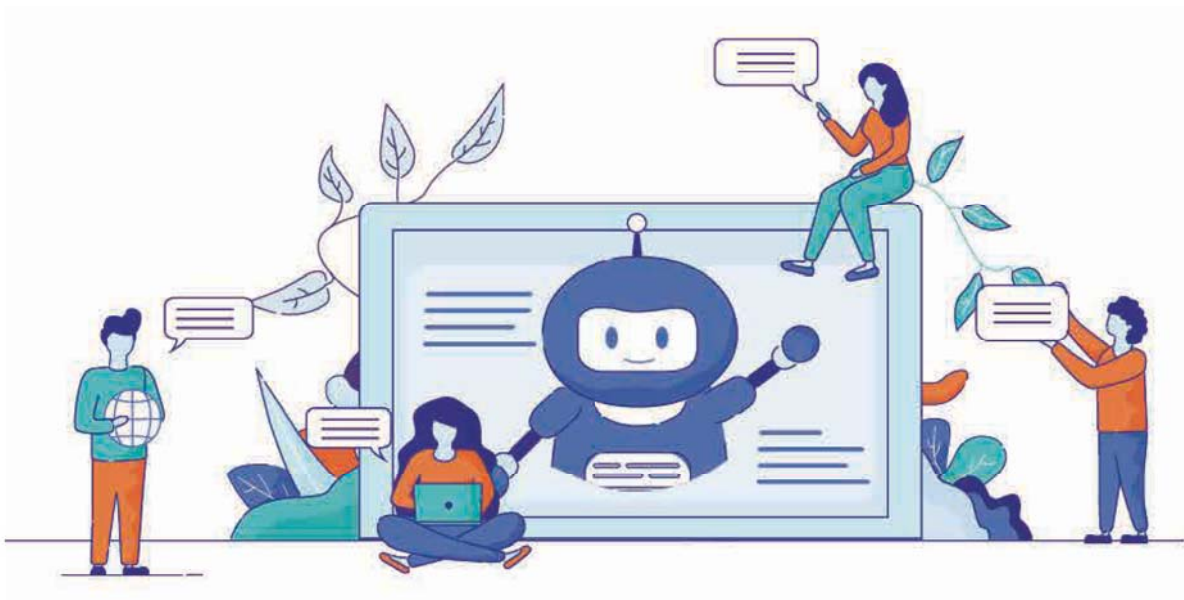
군포시는 법률 제4050호(1988. 12. 31. 공포)로 1989년 1월 1일 시흥군에서 분리하여 시로 승격하였으며 2021년 9월 기준 행정기구는 5국 3담당관24과 1직속1과1지소 의회사무과 1사업소3과12동을 두고 있다.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위임받은 업무와 군포시 고유의 행정 및 민원업무를 수행한다. 주요 업무는 행정구역을 관리하고 조례와 규칙을 제정하며, 지방세 부과와 징수,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국가 재산의 관리, 주민등록 관리, 복지사업과 위생사업, 각종 산업 진흥, 지역개발과 생활환경 개선, 체육과 문화예술 진흥 등이다.



군포시청 현재 전경

채용 트렌드에 대비하는 효과적인 취업전략

코로나19 장기화와 함께 기업의 채용 트렌드도 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원하는 기업에 취직을 희망하는 구직자라면, 변화되고 있는 채용 트렌드에 적극 대비하고
효과적인 취업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이라면 AI, SW, BIG DATA 분야의 활발한 채용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과 모바일 비즈니스가 활성화됨에 따라 디지털 분야에 대한 채용이 강화되고 있는데, 금융과 유통 분야가 대표적이다. 따라서 이 같은 트렌드를 고려해 각자가 코딩 역량과 빅데이터 분석 역량을 강화해 취업에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길 바란다.

이와 함께 4차산업 분야인 드론, 반도체, 배터리, 자율주행자동차, 스마트팩토리 등의 분야도 채용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관련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기업들의 채용

공고에 주목하길 바라며 전기, 전자, 기계, 제어, 컴퓨터 등 공학 전공자들은 본 분야의 채용정보를 주목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

채용방식도 살펴봐야 한다. 여러 번 언급하기는 했으나 비대면 채용방식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므로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길 바란다. 최근 들어 가장 눈에 띄는 채용방식 중 하나는 AI 면접과 온라인 화상 면접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는 것이다. AI 면접은 유형별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고, 온라인 화상 면접의 경우엔 기존의 인성 면접 준비와 함께 온라인 면접이라는 특수한 상황까지 철저히 대비를 해야 한다.

"나, 내일부터 출근한다"

군포시가 추천하는 이달의 일자리 정보!



기업정보	모집 직종 및 인원	근무시간 / 임금
(주)한국마케팅광고협회 국가경쟁력을 위한 행보 10가지사업 / 연구, 출판, 대행, 지원, 장학, 후원, 평가, 시상, 교육, 자격 ㉠ 군포시 공단로 284, 203호(금정동)	총무 및 일반 사무원.1명	㉠ 09:00~18:00(휴게시간 : 12:40~13:40) ㉡ 연봉 22,000,000원~24,000,000원
한세단기주야간보호센터 사회복지업 ㉠ 군포시 고산로151번길 4, 4층 한세주간보호센터	시설요양보호사.1명	㉠ 08:00~18:00 ㉡ 월급 1,822,480원 이상
삼성물산(주)안양컨트리클럽 골프장 운영 ㉠ 군포시 군포로 364	조경 식재원.1명	㉠ 출근시간 : 06시~08시(영업시간에 따라 유동적) - 9시간/일(휴게시간 포함) 근무 * 초과근무시 수당으로 지급 - 주말 근무 가능자 - 골프장 시즌/계절/영업시간에 따라 탄력적 운영 * 휴무일은 주중에 협의 조정함 ㉡ 일급 89,000원~91,000원
(주)멘토커리어 서비스 ㉠ 군포시 번영로 82, P동(부곡동)	창고 관리원 (자재 검수원 포함).5명	㉠ 09:00~18:00 ㉡ 월급 2,030,000원 이상
현도시스템 콘트롤 패널 제작 ㉠ 시흥시 시화벤처로 53, A4동(정왕동)	전기·전자 제어장치 설치·정비원.1명	㉠ 08:30~17:30 ㉡ 연봉 24,000,000원~36,000,000원
(주)샐러드판다 병샐러드 제조/판매 ㉠ 군포시 산본로85번길 7(당정동)	식품 분야 단순 종사원.1명	㉠ 07:00~16시:00 ㉡ 시급 9,000원
(주)씨엔에프 화장품 마스크팩 ㉠ 군포시 공단로140번안길 29(당정동)	제조 단순 종사원.1명	㉠ 주 5일, 주간 2교대 06:00~14:30/13:30~22:00 ㉡ 시급 8,930원
연세노인전문요양원 노인 입소시설과 이용시설 서비스 ㉠ 군포시 용호1로 32, 대한프라자 2층(당동)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시설).1명	㉠ 09:00~18:00 ㉡ 월급 2,000,000원 이상
(주)진한 산업, 가정용 플라스틱 일반성형 ㉠ 군포시 공단로140번길 55(당정동)	자재구매 사무원 (일반 사업체).1명	㉠ 08:30~18:30 ㉡ 연봉 25,800,000원~27,000,000원
미찌코리아 식육가공 ㉠ 의왕시 오전공업길 42-13 (고천동)	경리 사무원.1명	㉠ 09:00~18:00 ㉡ 월급 2,000,000원 이상

※ 2021년 9월 17일 기준 자료로 구인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구인구직정보는 일자리센터(031-390-0347)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군포소식이 시민 여러분의 행복소식을 기다립니다

분야 시·수필(자유 주제)

분량 1,100자 이내(10포인트 기준
A4 반장 내외)

참여 이메일 kunpo23@korea.kr 제출
주소 및 연락처(모바일) 기재 필수

* 원고가 게재되면 소정의 참여 보상 지급
: 3만원 상당, 모바일 문화상품권 등 (사전 연락 없음.)

* 기고 제출 시 원고료 지급 등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 최근 6개월 내 원고 게재자는 독자기고 **참여가 제한**
됩니다.

* 제출기한은 **매월 18일까지**입니다.

🔊 **바로잡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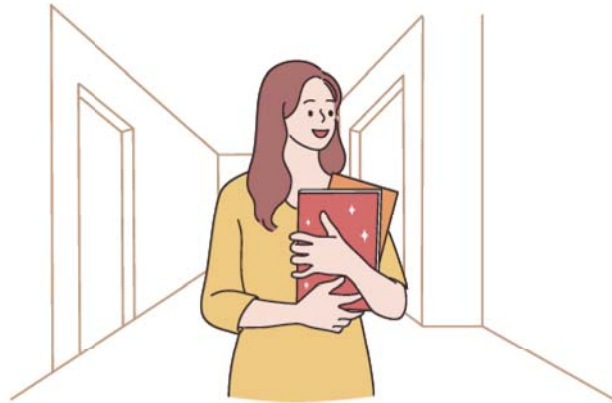
404호(9월호) 병실에서 느낀 이웃과의 精▶情

🔊 **알려드립니다.**

korea.kr 메일은 공무원 보안메일로 수신을
하여도 수신확인으로 뜨지 않습니다. 매일
실시간으로 메일 확인하고 있으니 기고 제출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10주의 행복

홍경옥



나는 18년동안 방문학습지 교사로 일해 왔다.

코로나19시대. 지금껏 겪어 보지 못한 강력한 녀석이 나타났다. 그동안 감기를 비롯해서 독감, 수족구, 신종플루, 메르스 등등 많은 적들을 만나봤지만 이렇게 강한 녀석은 나를 당황하게 했다.

평범하던 지난 일상들은 꿈이 되었고 사람을 대면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스트레스의 무게가 가중되었다.

나는 용기를 내 그동안 나의 짝 찬 하루를 책임져 주었던 일을 그만두고 제2의 세계에 문을 두드렸다. 군포문화재단에서 진행하는 "미디어 콘텐츠 제작 및 강의법"과 평소 좋아하고 관심 있던 그림에 대한 강의인 "도슨트 양성과정"에 등록했다.

처음 수업에 들어가 나는 당황했다. 가볍게 강의를 신청하고 들으려 했던 나의 마음은 연령대가 다양하고 전공이 다른 여러분야의 전문가들을 만나면서 진지해졌다. 전문적인 실력을 겸비한 여러분을 만나면서 잘 할 자신은 없었지만 끝까지 완주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내가 가보지 못한 세계, 내가 볼 수 없었던 세상, 듣는 것도 보는 것도 말하는 것도 지금껏 내가 알지 못했던 신세계의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 나는 새로운 분야를 배우는 재미에 빠져 한 주 한 주가 지나가게 너무나 아까웠다.

전문용어의 대부분은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나보다 어린 나의 선생님 두분께 나는 지식보다 더 한 지혜를 배웠다. 양은선 선생님, 김가희 선생님! 함께 수강하면서 따뜻한 격려를 아끼지 않았던 우리 기수분들…….

퇴직으로 가장 힘들었을 나의 10주를 최고의 행복으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할아버지댁에 가야 하는 이유

박순규

유난히 힘들게 느껴지는 월요일 출퇴근길……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녁부터 준비하느라 바쁘게 유치원에 돌아와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아들 녀석이 뜬금없이

“엄마, 나 할아버지한테 좀 가야겠어요.” 한다. 바쁜 탓에 그저 “그래 알았어.” 하고 대답하고 말았는데 그 뒷말에 그냥 서서 웃고 말았다.

“돈이 떨어져서 할아버지한테 가서 용돈 좀 받으려고.”

친정에 가면 아버지가 맛있는 거 사 먹으라면서 만 원씩 주셨는데 그걸 말하는 것이다.

“네가 무슨 돈이 필요해서?” 하며 웃는 나에게 “엄마, 내가 아까 텔레비전에서 봤는데 얼굴에 바르면 기미가 다 없어진대. 엄마가 매일 화장할 때 얼굴에 기미가 많다고 속상하다고 했잖아. 내가 엄마 그거 사줄게 걱정하지 마. 엄마 돈 없잖아. 그러니까 할아버지한테 가야 해.” 한다.

세상에나…… 이렇게 예쁜 아들이 또 있을까? 하루의 피로가

말끔히 지워지는 듯했다.

“그래도 할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가야지, 용돈 받으러 가면 할아버지가 슬프지 않을까?”

했더니, “췌, 그건 비밀이지, 엄마. 할아버지한테는 할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왔다고 말해야지. 그 정도는 나도 알아, 엄마.” 하는 말에 웃고 또 웃었다.

매일매일 말이 느는 아들이 내일은 또 어떤 말로 웃음을 줄까 기대된다. 녀석 덕분에 너무 예뻐져 사람들이 못 알아보는 것은 아닌지 살짝 염려된다.



나에게 의미있는 숫자들...

김지영



1(하나) : 지난 30여 년의 내 인생에서 유일무이한 오직 **하나**밖에 없는 부모님이 내겐 전부였지.

2(둘) : 그러다 평생을 함께 해도 좋을 내 반쪽인 한 남자를 만나 **둘**이 되었네.

3(셋) : 2013년 여름 결혼을 하게 되고…….

4(넷) : 수컷 토끼와 암컷 원숭이가 만나 이듬해 암컷 새끼 말두마리가 태어났고 한 가족 **네** 식구가 되었다네.

5(다섯) : 네 식구가 되고 지금의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사온 지도 어느덧 **5**년째라네.

6(여섯) : 매해 **6**월은 세상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값진 보물들이 태어난 달이지.

7(일곱) : **7**월은 우리 두 사람이 연인에서 부부로 백년가약을 맺은 달이고…….

8(여덟) : 고통은 두 배, 행복은 무한 배로 만들어주는 우리 사랑하는 딸들이 **여덟**살이 되어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지.

9(아홉) : 내년 2022년은 우리 부부가 결혼한지 **9**주년… 덩달아 아이들도 한 살이 더해져 **아홉**살이 된다네.

10(열) : 결혼 **10**주년에는 의미 있게 신혼여행지로 다함께 여행가자던 그 8년 전 약속은 바람대로 지킬 수 있을런지… 간절한 소망이 코로나의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을지… 숫자 1부터 7까지의 코로나가 없던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

화장장려금 확대 지원

- 지원일시 : 2021년 9월 30일부터
- 지원금액 : 현 30만원 → 최대 84만원 지원 (84만원 미만 시 실비 전액 지원)
⇒ 화성시 종합장사시설 참여시 의 화장비용 16만원과 동일한 혜택
* 전국 어느 곳의 화장장을 이용하더라도 이용료를 최대 84만원까지 지원
- 지원대상 : 사망일 현재 군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망자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
- 신청방법 : 화장 후 180일 이내 사망자 주소지 주민센터 신청
- 화장시설별 화장 비용

시설명	화장 비용	군포시민 부담액
용인 평온의 숲	60만원	없음
천안 추모공원	50만원	없음
세종 은하수공원	48만원	없음
수원 연화장	100만원	16만원
성남 장례문화사업소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서울 추모공원		
인천 가족공원		
원주 하늘나래원, 광주 나래원, 홍성 추모공원, 충주 하늘나라, 청주 목련공원 등 다수		없음

군포시청 위생지원과 공중위생팀 ☎ 031-390-0891, 0165

2021년 어르신 독감 예방접종 안내

- 접종대상 : 만 65세 이상 어르신 (1956.12.31.이전 출생자)
- 접종기관 : 위탁의료기관 98개소(보건소 접종불가)
- 접종일정

만 75세 이상 (1946.12.31.이전출생자)	21.10.12.(화)~22.02.28.(월)
만 70~74세 (1947.1.1.~1951.12.31.출생자)	21.10.18.(월)~22.02.28.(월)
만 65~69세 (1952.1.1.~1956.12.31.출생자)	21.10.21.(목)~22.02.28.(월)

※ 반드시 연령별 접종기간에 맞추어 접종

- 지원내용 : 인플루엔자 4가 백신 예방접종 1회 무료
- 준비물 : 신분증

군포시보건소 예방접종실 ☎ 390-8954~5

이런 분들은 예방접종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 과거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후 중증(생명에 위협적인)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경우
- 인플루엔자 백신접종 후 6주 이내 길랭-바레 증후군의 과거력이 있는 사람은 예방접종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령친화, 인지기능강화 커뮤니티

'늘푸른 열린광장' 개장 안내

개장일시 : 2021년 9월 7일
개장장소 : 군포시 산본천로 101

이용안내 '늘푸른 열린광장'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건강측정 기구 / 건강검진 트랙 / 인지건강운동 안내판
인지력운동용 기구 / 인지건강 화단 / 인지길 / 바둑놀이



이용안내 : 군포시늘푸른노인복지관 (031-392-5755)

'늘푸른 열린광장'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재단이 주관하는 고령친화시설 조성사업인 군포시늘푸른노인복지관이 사업주관으로 조성합니다.

이전 찾아 말고 정부24에 접속하세요

보조금24

정부24 로그인 한번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을 쉽게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입니다.

1 이용안내

온라인 이용방법

어디서 정부24(www.gov.kr) 또는 정부24앱(회원가입 필수)

누가 본인

어떻게

- 1 정부24 로그인 후 보조금24 클릭
- 2 서비스 이용동의 체크 (최초1회)
- 3 정부혜택 확인·신청

오프라인 이용방법

어디서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신분증 지참 필수)

누가 본인 또는 대리인 (배우자 및 친계존속인)

어떻게

- 1 본인신분증 지참하여 보조금24신청서 제출
- 2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 목록 수령하기
- 3 상세내용 확인 후 신청

문의처 : 정부24콜센터(1588-2188), 정부안전안내콜센터(110), 지역콜센터(지역번호+120)

2 앞으로 더 많은 정부 혜택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	21년 4월	21년 12월	22년
혜택 종류	중앙부처서비스 (305종)	지자체 서비스 (6천여 종)	공공기관, 민간단체 서비스
혜택 확인 가능 대상	본인	*통일세대전의 가족	*가족관계등록부상 가족
신청 가능	약 25종	약 75종	약 100종까지

*14세 이상 가족이 사전동의 시 확인 가능

호스피스 · 완화의료

[Hospice and Palliative care]

호스피스완화의료란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팀이 말기환자의 통증 및 증상을 적극적으로 조절하고 환자와 가족의 심리적·사회적·영적 고통을 경감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의료입니다.

호스피스 유형

입원형 

보건복지부 지정 호스피스 전문기관 병동에 입원한 말기암환자와 가족들에게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를 제공 합니다.

가정형 

가정에서 지내기를 원하는 말기환자와 가족에게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기관의 호스피스팀이 가정으로 방문하여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문형 

일반 병동과 외래에서 진료를 받는 말기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호스피스팀이 담당 의사와 함께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군포시 호스피스전문기관

기관명	연락처	서비스 유형		
		입원형	가정형	자문형
남천병원	031-390-2073	○		
지생병원	031-389-3892	○		

호스피스 완화의료팀

- ♥ 전문의료진이 환자의 힘든 증상을 최대한 완화해 줍니다.
- ♥ 환자와 가족의 감정을 표현 할 수 있도록 돕고 지지합니다.
- ♥ 환자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함께 실천하도록 돕습니다.
- ♥ 음악·미술·요법 등의 프로그램과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최대한 돕습니다.

www.hospice.go.kr / 1577-8899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가이드라인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80% 상당 기준액과 가구별 '21.6월 건보료를 비교하여 대상여부 결정
*인 가구, 맞벌이 가구, 독거 노인

지급규모 1인당 25만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1인: 25만원, 2인: 50만원, 3인: 75만원, 4인: 100만원, 5인: 125만원

대상자 조회 및 알림 서비스 신청

알림신청 '21.8.30.(월)~'21.12.23.(목)
국민서버 홈페이지 및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에서 신청

대상조회 '21.9.6.(월)~'21.10.29.(금)

온라인 카드사 홈페이지 앱 플랜타ARS, 건보공단 홈페이지 앱, 경기지역화폐 앱, 카카오톡 카카오페이 앱 등 접속

오프라인 카드사 연계 은행창구 방문 등

지원금 신청방법 및 일정 '21.9.6.(월)~'21.10.29.(금)

성인 2002.12.31.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 신청수령

미성년자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수령 ※주민등록표에 성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자 세대주는 직접 신청 가능

신청지역 기준일('21.6.30.)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 기준 ※거주불명자 없는 지자체에서나 신청 가능

온라인에서 신청하고 싶다면? * 필수 요건에 따른 '21.9.6.(월) 09:00~'21.10.29.(금) 18:00

신용-체크카드 카드사 홈페이지 앱, 플랜타ARS

경기지역화폐 카드 경기지역화폐 앱 · 홈페이지(<https://app-cds.korcard.co.kr/home/app>)

오프라인에서 신청하고 싶다면? * 필수 요건에 따른 '21.9.13.(월) 09:00~'21.10.29.(금) 18:00

신용-체크카드 제휴은행 창구(~16:00)

경기지역화폐 카드 주소지 등 행정복지센터

가동이 불편하다면? 찾아가는 신청을 이용하세요! '21.9.13.(월) 09:00~'21.10.29.(금) 18:00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1인가구 중 찾아가는 신청 요청 시, 지자체에서 방문 접수

사용기간 '21.12.31.(금)까지 사용 가능 ※ 토·일요일, 공휴일은 오프라인 창구 미운영

콜센터 '21.9.6.(월)~'21.11.12.(금)

*전담 콜센터 (1533-2021) *군포시 콜센터 (031-392-3000) | 접수 | '21.11.12.(금)까지 | 채민 | '21.12.31.(금)까지 마감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인당 25만원 지급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제외 도민 -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지급 대상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제외 도민
*2021.6.30.(수) 24시까지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내국인(주민등록) 및 외국인(주민등록표 등사 외국인, 영주권자·결혼이민자 등)

지급액 : 1인당 25만원 (경기도 90%+시·군 10%)

온라인 신청 : 10월 1일 ~ 10월 29일
- 신청 방식 : 경기지역화폐카드, 신용·체크카드, 통일 카드사 내 카드 선택 가능
- 신청 방법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 (10월 1일 오픈)

오프라인 신청 : 10월 12일 ~ 10월 29일
- 신청 방식 : 경기지역화폐카드
- 신청 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주말 및 공휴일 미운영)
- 외국인 오프라인 신청 : 10월 12일 ~ 10월 29일

꼭 지켜주세요!
반마비리시스템도
꼭 지켜주세요!
주먹악수 X
목례 O

2021 군포시 마을공동체 다과비 지원 이벤트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우리 마을을 위해 활동하시는 공동체 분들을 위해 약소하게나마 힘을 드리고자 다과비 지원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1. 신청안내

	내용
신청자격	마을공동체 등록제로 등록된 공동체
지원내용	모임활동시 다과비 지원 공동체별 월 2회 이내 / 1회 기준 1인 3,000원 이내 지원
지원금액	예산 총 100만원 (소진시 이벤트 종료)

※ 등록제 미신청 공동체는 등록제 신청 후 다과비 이벤트 신청가능

2.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이메일 접수 검토 및 승인 다과비 지원

※ 제출서류 : 다과비 지원 신청서 ※ 이메일 : gunpose@naver.com

3. 신청기간

2021.09.06 (월) ~ 예산 소진 시 종료

4. 문의

군포시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지원센터
마을등록제 담당 (T.070-4432-4071)



한정관리청

올해도 꼭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하세요!

만 13세 이하 어린이

• 2021~2022절기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안내 •

- 지원대상: 생후 6개월 ~ 만 13세 어린이 (2008.1.1. ~ 2021.8.31. 출생)
- 지원기간: 2회 접종대상자 2021. 9. 14.(화) ~ 2022. 4. 30.(토)
1회 접종대상자 2021. 10. 14.(목) ~ 2022. 2. 28.(일)
- 접종기관: 지정 의료기관 60개소 (보건소 및 보건지소 접종 불가)
*지정 의료기관에 접종여부 사전 확인 후 방문

의료기관 방문 시 지켜주세요!

예방접종도우미 바코드!

군포시보건소 예방접종실 390-8954~55

한정관리청

한 번의 예방접종으로 삼아와 아기 모두 지켜요!

임신부라면 반드시 접종!

• 2021~2022절기 임신부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안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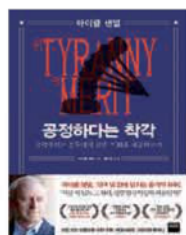
- 지원대상: 임신여부를 확인한 임신부 (산모수첩 등)
*임신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임신주수에 상관없이 접종 가능합니다.
- 지원기간: 2021. 9. 14.(화) ~ 2022. 4. 30.(토)
- 접종기관: 지정 의료기관 40개소 (보건소 및 보건지소 접종 불가)
*지정 의료기관에 접종여부 사전 확인 후 방문

의료기관 방문 시 지켜주세요!

예방접종도우미 바코드!

군포시보건소 예방접종실 390-8954~55

10월 군포시 사서가 권하는 “이 책 어때요?”



공정하다는 착각 / 마이클 샌델



나도 모르게 자꾸만 하고 싶어! 고지키 유



쇼팽 / 김주영



오늘의 식탁에 초대합니다 / 펠리치타 살라



두 얼굴의 한국어 존대법 / 김미경



역병이 돈다, 조선을 구하라! / 한미경



생각을 바꾸는 생각들 / 비카스 사



아주 보통의 행복 / 최인철



달까지 가자 / 장류진



엄마의 비밀편지 / 박현숙



요즘 아이들 마음고생의 비밀 / 김현수



일곱 번째 노란 벤치 / 은영

군포시의회 뉴스

군포시의회, 추경예산안 8,875억 가결



군포시의회는 9월 14일 제25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및 추경 예산안 등 상정된 모든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쳤다. 9월 6일부터 14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임시회에서는 26건의 조례와 10건의 기타 안건,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8,875억 6,453만원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군포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타 시·군과의 혜택의 형평성을 고려해 화장 장려금을 84만원으로 증액하고, 시민의 편익을 위해 공포 즉시 시행하도록 수정가결했다. 의원발의 조례 9건과 군포시장이 제출한 16건의 조례안, 동의안 6건은 원안가결했다. 금정역 역세권, 산본1동1지구, 산본1동2지구 재

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제시안, 군포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의견제시안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시의 노력을 주문했다.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2억 5,000만원, 산업단지 특별회계에서 55억 1,400만원을 삭감하고 예비비를 증액했다. 산업단지 특별회계에서 삭감된 예산은 해당 사업이 정부의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사업 지구에 포함되면서 사업이 보류됐다.

성복임 군포시의회 의장은 "소상공인과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이 신속히 집행돼야 할 것이다"라고 말한 뒤 "코로나로 지치고 힘든 마음이지만, 성공적인 방역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제3차 공공택지 개발, 선행 조건 제시



성복임 군포시의회 의장이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제3차 공공택지 개발계획에 군포의 미래 발전을 위한 필수 조건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9월 6일 열린 제25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성복임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도시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도시 규모의 택지개발 추진은 반가운 일이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전제돼야 할 여러 조건이 따른다"라며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나타냈다.

성복임 의장은 제3차 공공택지의 성공적 개발과 군포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광역교통 대책 수립 ▲임대주택 비율 최소화 ▲자족 기능 확보 ▲군포북합물류터미널 이전 ▲서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서서울변전소 부근 송전탑 지중화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의 사업추진에 앞서 반드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추석 앞두고 장보기 행사 마련



군포시의회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역 시장을 방문해 추석맞이 장보기 시간을 가졌다. 구입한 물품은 아이들이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에 전달했다.

9월 17일 당동로1번가 시장을 방문한 시의원들은 과일과 고기 등을 구입했다. 결제는 지역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했다. 이날 장보

기는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준수하면서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했다.

의원들은 물품을 구입하면서 자연스럽게 상인들과 대화를 나눴고, 상인들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침체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군포시의회는 코로나19 극복과 상인 지원을 위해 의회 차원의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상인들을 격려했다. 의원들은 상가를 방문한 시민들에게도 지역 내 시장과 상가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성복임 군포시의회 의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과 상인들을 위해 의원들의 마음을 모았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모든 분들이 안전하고, 풍성한 한가위를 보내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사회복지시설에 위로와 격려 전달



군포시의회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사회복지시설에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전했다.

9월 16일 지역 내 8개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에 군포시의회 성복임 의장 명의의 서한문과 온누리상품권을 전달한 것. 이번 행사는 추석을 맞아 많은 사람이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상황에서 오히려 더 외롭고, 쓸쓸한 명절을 보내는 이웃

은 없는지 돌아보기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의원들이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방문하지는 않고, 의회사무과에서 물품만 전달했다.

성복임 의장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직접 찾아 뵙지 못했지만, 따뜻하고 풍성한 추석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을 돌보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숨은그림** 중, 돼지저금통, 원피스, 하이힐, 모자, 버섯, 뼈다귀, 아이스크림
- 수수께끼** 군포시는 중앙도서관과 어린이도서관에 소장하지 않은 도서를 가까운 서점에서 대출받고 반납할수 있는 0000 바로대출 서비스를 운영중 입니다.(7페이지 참고)

숨은그림과 수수께끼의 정답을 모두 표기 사진을 촬영해 10월 20일까지 이메일 kunpo23@korea.kr로 제출해 주세요.

다섯 분을 추천해(개별 공지)1만원 상당의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korea.kr 메일은 공무원 보안메일로 수신을 하여도 수신확인으로 뜨지 않습니다.
매일 실시간으로 메일 확인하고 있으니 정답 제출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호 정답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성명, 휴대전화 뒷번호 4자리 발표)

배*희(1315), 변*량(5699), 조*호(8985), 민*영(1564), 유*화(2048)

상품권 발송을 위한 개인 정보 수집동의

예 ☐ 아니오 ☐

- 개인 정보의 수집 목적 : 당첨 시 본인 확인 및 상품권 배송
- 수집하는 개인 정보 항목 : 성명, 휴대전화 번호
- 개인 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1년 보유 후 파기

정답제출 유의사항

- 이메일 응모 시 이름, 휴대전화 번호 표시 필수(휴대전화 번호 잘못 기재 시 당첨 취소)
- 대용량 사진 파일 첨부 금지(다음, 한메일은 대용량으로 첨부되므로 이용 금지)
- 최근 6개월 내 당첨자는 추첨에서 제외
- ※ 위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을 시 추첨에서 제외

지난 호 정답

수수께끼 : 학교 부설주차장

숨은그림 : 방아리장갑, 삼각자, 전화기, 나비, 장화, 우산, 포크, 종



10 CULTURE CALENDER

● 문화예술회관 ● 평생학습원 ● 수리산상상마을 ● 생활문화센터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군포시생활문화센터 4분기 수시대관(10~12월) 대관시설 : 군포시생활문화센터 접수기간 : 10. 1(금) 09:00~12.31.(금)18:00 이용기간 : 10. 1(금)~12.31.(금) 대관비용 : 시간당 단체실5,000원 / 개인실3,000원 / 다목적스튜디오 15,000원 접수방법(이메일 신청) : gpccenter3040@naver.com 홈페이지 : www.gunpoculture.or.kr 문 의 : 031-390-3044 ※ 코로나 방역단계에 따라 대관 일정, 사용 가능인원 및 센터 운영시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리산상상마을 청소년 창의과학 메이커 사업 운영 운영기간 : 9월~12월 운영장소 : 흥진중학교 외 6개 학교(온라인 ZOOM수업) 참여학교 : 관내 중·고등학교 과학 동아리 6개팀 186명 참여인원 : 총 36회 876명 예정 운영내용 : 관내 중·고등학교 과학 동아리를 대상으로 메이커 전문교육 제공과 학습활동을 지원하여 청소년들의 관련 특기개발 및 창의활동 증진 문 의 : 031-390-3066				꺼지지 않는 예술혼 대향 이중섭 레플리카展 일 시 : 10. 1.(금)~31.(일) 10:00~18:00 ※ 매주 월요일 휴관 장 소 : 군포문화예술회관 1·2전시실 입장료 : 5,000원 문 의 : 031-390-3500-1	
3 개천절	4 대체 휴일	5	6	7	8	9 한글날
기획전시 공중모색展 <너는 언제나 내 옆에 있었지> 온라인 전시운영 및 전시연계 교육 전시기간 : 10. 1.(금)~12. 17.(금) 키트수량 : 10. 1.(금)~10. 30.(토) 운영방법 : 군포문화재단 유튜브를 통한 전시 및 교육 내 용 : 기획전시 영상 관람과 교육구미를 통한 전시연계 교육 대 상 : 5세이상 누구나 관 람 료 : 무료 신청방법 : 선착순 온라인 접수(네이버 사전 예약 9월 27일 오픈) 문 의 : 031-390-3032	2021 취미로 만나는 사이 '동동취미전展' 기간 : 9. 30.(목)~10. 5.(화) 10. 14.(목)~상시 온라인VR전시 (군포시생활문화센터 홈페이지) 장소 : 군포시생활문화센터 커뮤니티갤러리홀 *토요일 및 공휴일 휴관 내용 : 취미로 만나는 사이 '취미레시피' 성과를 전시 참조 : http://www.gunpocf.or.kr/?pid=J 문의 : 군포시생활문화센터 031-390-3042				2021 군포시 네트워크 캠퍼스 경기대 연계 <청년 창업가 과정 : 실천편> 교육기간 : 9. 30.~11. 18.(매주 목요일 19~21시) 교육대상 : 청년 예비 창업자 15명(20세~만 39세) 강의방법 : 온라인(ZOOM) 수업 교육내용 : 예비 청년 창업가들을 위한 창업 실천 교육 참 가 비 : 무료 접수문의 : 031-390-3084	
10	11 대체 휴일	12	13	14	15	16
메이커스페이스 메이커 코딩 전문강사 양성과정 운영 교육기간 : 9. 24.(금)~11. 12.(금) / 총 8주 교육대상 : 20명(군포시 경력단절여성 우선) 강의방법 : 경기도평생학습 포털 지식(www.gseek.kr) 온라인 진행 운영내용 : 메이커 코딩 전문강사 육성 및 취업연계 활성화 문 의 : 031-390-3066	수리산상상마을 성인문화교육 느티나무학교 2021년 시화전 수상 행 사 명 : '2021년 전국 성인문화교육 시화전', '2021년 경기도 성인문화교육 시화전' 행사내용 : 2021년 문해의 달 기념 시화전 출품 및 수상 수 상 명 : 우수상(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상), 장려상(전국기초문해교육협의회장상) 수 상 자 : 한오순, 박남단(느티나무학교 3단계 초등학교인정과정) 수 상 작 : 윤원, 편지 전시기간 : 9월~12월 전시장소 : 국가문해교육센터 온라인 전시관(9.7~),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시화전(9.10~) 전시 중 문 의 : 031-390-3067					
17	18	19	20	21	22	23
2021 민주시민교육 "시민이 주인되는 군포" [제2강 소통과 화합] 교육기간 : 10. 27.~11. 17. (매주 수요일 14~16시) 교육대상 : 15명(군포시민 누구나) 강의방법 : 온라인(ZOOM) 수업 접수기간 : 9. 2(목)부터 마감시 접수방법 : 선착순 온라인 접수(수리산상상마을 홈페이지) 참 가 비 : 무료 접수문의 : 031-390-3083	2021 군포문화재단 평생학습 포럼 일 시 : 10. 21.(목) 14시~16시 장 소 : 수리산상상마을 디지털플랫폼(2층) 대 상 : 50명(평생학습관계자 및 일반시민) 참여방법 : 온라인(ZOOM) 참여 참여접수 : 네이버폼 신청(수리산상상마을 홈페이지 참조) 포럼주제 : 위드 코로나 시대, 평생학습 리부트 문 의 : 031-390-3033			브런치클래식 <러시아니즘> V. 전쟁과 평화 일 시 : 10. 21.(목) 11:00 장 소 : 군포문화예술회관 수리홀 입장료 : 전석 15,000원 문 의 : 031-390-3500-1	수리산상상마을 '집콕 힐링 프로젝트' 강좌명 : 줌바댄스 일 시 : 10. 21.(목) 11:00 강의방법 : 군포문화재단 유튜브 송출 대 상 : 군포시민 내 용 : 온라인 건강강좌 문 의 : 031-390-3032	Rock &樂 Concert Vol.37 윤편편 일 시 : 10. 23.(토) 19:00 장 소 : 군포문화예술회관 철쪽홀 입장료 : 전석 50,000원 문 의 : 031-390-3500-1
24	25	26	27	28	29	30
	2021 수공예전시 '군포아트마켓' 기간 : 10. 26.(화)~10. 30.(토) / 10. 30.(토) 현장판매 운영 장소 : 군포시생활문화센터 커뮤니티갤러리홀 내용 : 수공예품을 보고, 사고, 즐길 수 있는 전시형 생활문화예술 장터 참조 : https://cafe.naver.com/gpartmarket 문의 : 군포시생활문화센터 031-390-3043		네버랜드 in 군포 VI. 인생은 영화처럼 일 시 : 10. 27.(수) 19:00 장 소 : 군포문화예술회관 철쪽홀 입장료 : 문화가 있는 날 특별가 10,000원 문 의 : 031-390-3500-1		뮤지컬 <시카고> 일 시 : 10. 29.(금)~31.(일) / 금 19:30, 토 14:00, 18:30, 일 14:00 장 소 : 군포문화예술회관 수리홀 입장료 : VIP석 14만원, R석 11만원, S석 9만원, A석 6만원 문 의 : 031-390-3500-1	
31						



구독자 이벤트!

설문조사하면 선물이 팡팡!



안녕하세요. 군포시는 <군포소식>을 월 1회 제작하고 있습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유익한 <군포소식>을 만들고자 설문을 실시하니 바쁘시더라도 성심껏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 설문자료는 본 조사의 목적을 위해 서만 사용될 예정입니다.
※ 설문조사 주관기관- 군포시청 홍보정보 담당관(경기도 군포시 청백리길 6)

응모기간

2021. 10.1.~10.20.

응모방법

두가지 방법 중 선택하여 응모 가능

- ① 하단의 QR코드를 찍어 접속하여 설문조사 작성



- ② 우측의 설문조사 작성 후 사진을 찍어 이메일 kunpo23@korea.kr로 전송

상 품

모바일 문화상품권 (5천원 상당)

※ 30명 추첨

독자설문

- 1 귀하의 성별은? ☐ 여성 ☐ 남성
- 2 귀하의 연령은? ()세
- 3 귀하의 주거지역은? ☐ 군포시 ☐ 군포시 외
- 4 군포소식 구독 방법은?
① 우편 정기구독 ② 관공서 ③ 아파트 동(현관) ④ 전철역 ⑤ 은행 등 기타
- 5 군포소식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선택해 주세요.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 6 군포소식 중 가장 만족스런 콘텐츠는 무엇입니까?
① 군포多음(이슈 속으로, 코로나19 지금 군포는)
② 군포情감(꽃보다 사람, 온&오프)
③ 군포多락(굿바이 코로나 랜선 나들이, 동네 한 바퀴, 해시태그 G태그)
④ 군포感동(군포아리랑, 브라보 군포 라이프, 독자 에세이)
⑤ 군포U뉴스(군포U뉴스, 군포시의회 뉴스, 독자세상, 문화캘린더)
- 7 군포소식은 현재 36면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2022년도 군포소식 제작시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면수는 무엇입니까?
① 32면 ② 36면 ③ 40면 ④ 44면 ⑤ 48면
- 8 2022년도 군포소식 제작시 바라는 개선사항이나 희망하는 콘텐츠가 있다면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상품권 발송을 위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

☐ 동의

- 개인 정보의 수집 목적 당첨시 본인 확인 및 상품권 배송
- 수집하는 개인 정보 항목 성명, 휴대전화 번호
- 개인 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1년 보유 후 파기

※ 휴대전화번호 잘못 기재 시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니 한번 더 확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위해 개인정보수집에 동의하시는 경우 귀하의 성함과 휴대전화번호를 작성해주세요.

이름 :

휴대전화 :

우편으로 <군포소식> 정기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주소를 남겨주세요.(무료)

주소 :